

나의 살던 고향은

고곳의 옛모습을 기억하시나요



1990년 홍수로 인해 돼지가 돌아다니는 행주동 모습.



2020년 현재 한강변 모습. 철책은 없어지고 자전거길이 새로 만들어졌다.

1990년 9월 대홍수와 돼지

1990년 고양지역 최대의 홍수가 발생했다. 신평동과 행주외동 사이의 한강제방(일명 대보둑)이 무너져 고양 서부지역의 주민들은 대홍수의 큰 피해를 겪게 되었다. 사진은 대홍수 발생 며칠 후 한강제방 위로 피해 목숨을 구한 돼지들이 뚝에서 말리고 있던 벼 위를 걷고 있는 모습이다.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를 막기 위해 설치한 철책에는 제방 붕괴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깃발과 옷가지 등이 걸려 있다. 30년이 지난 지금, 이 자리에는 자유로가 건설되었고 철조망은 철거되었으며 수변공원조성을 위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1992년 백마역 주변 카페촌의 모습.



2020년 현재 마두동의 모습. 화사랑은 풍동으로 이전하고 주변 모습은 크게 바뀌었다.

1992년 일산 마두동과 풍산동

일산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기 이전의 마두동과, 경의선 철도길 넘어 풍산동 단풍마을과 숲속 마을의 모습이다. 가운데 전봇대 뒤편의 집이 당시에 유명했던 '화사랑'인데 그 주변에 서울 등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 멀리 단독주택들은 흔히 '풍삼리'라 불렸는데 지금은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지어졌다. 이곳 부근에 백마역, 화사랑, 경의선 철도 등이 있어 젊은이들이 많이 찾던 일산의 명소로 유명했다. 사진의 도로와 주변에는 백마마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으며 화사랑은 인근으로 이전했다.

글 정동일(현 고양시청 역사 문화재 전문위원) / 사진 제5회 고양시 사진·영상 공모전 참여작